

클러스터 보이싱의 분석과 적용

항형윤* 조태선**
*여주대학교 실용음악과
**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
*e-mail:telecaster52@hanmail.net
**e-mail:entheos@korea.com

Analysis And Appilcation of Cluster Voicing

Hyung-Yun Hwang* , Tae-Seon Cho**

*Dept of Applied Music Yeojoo College

**Dept of Applied Music, Choongwoon University

요 약

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음악은 기존의 12음 기법을 유지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음소재(音素材)나 작법(作法)이 출현하게 되었다. 이 중 온음 이내의 좁은 음정간격에서 다수의 음이 나는 톤 클러스터(Tone Cluster)는 현대음악에서 작곡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다.

이러한 클러스터 보이싱은 재즈음악과 대중음악에서도 종종 사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클러스터 보이싱을 만들어 보고 적용시켜 보았다.

1. 서 론

음악을 성립시키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중요한 요소인 리듬, 멜로디, 화성을 음악의 3요소라고 하며 음악작품의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치고 있다.

화성에는 기본적으로 3화음(Triads), 4화음(Seventh Chords), 분수코드(Slash Chords), 4th Chords, 폴리코드 등이 있으며 각각의 특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.

이 중에서 군집화음(群集和音)인 클러스터(Clusters)를 이용한 화성적 접근을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한다.

먼저 클러스터의 의미를 살펴보면 밀집 화음 중의 하나이며, 2도로 구성되는 다중 화음을 가리킨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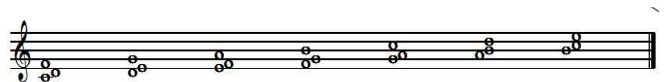
클러스터의 종류는 온음계적 클러스터와 반음계적 클러스터가 있고 건반의 백건과 흑건(5음계)만의 클러스터 등이 있다. 통상적으로는 옥타브 안에 2도 음정이 두 개 이상 나타나는 것 이지만 장 7도 안에 12음 모두를 사용하는 풀 클러스터(Full Cluster), 동적 과밀로서 여러 성부가 독자적인 선율형태로 움직임으로서 형성되는 다이내믹 클러스터(Dynamic

Cluster), 각 구성음이 동시에 나타나 지속되는 스태틱 클러스터(Static Cluster), 두 개 이상의 과밀음군(過密音群)이 동시에 나타나는 폴리 클러스터(Poly Cluster) 등으로 확대하여 나눌 수 있다.

본 논문에서는 한 옥타브 안에서 한 개의 2도간격의 음정을 포함한 클러스터를 만들어보고 어떻게 사용되고 응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.

2. 본 론

[그림 1]을 보면 C 메이저 스케일에서 2도와 3도 음정(Interval)을 포함한 3-Note 클러스터 이다.



[그림 1] 2nd+3rd의 클러스터 보이싱

[표 1]은 앞에서 만든 [그림 1]의 클러스터를 다양한 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드로 만들어 보았다.

이를 이용해서 많은 음을 사용하지 않아도 코드 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3도간격의 음정 이 아닌 2도 음정을 통해서 새롭고 독특한 느낌의 화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.

[표 1] 사용가능한 코드표

구성음	사용 가능한 코드들
C D F	Dm7, G7sus, Bbadd9, EbM9/13 AbM#11/13
D E G	Cadd9, Em7, A7sus, BbM#11/13, D7sus, FM9/13
E F A	Dm9, FM, BbM#11, Bm7b5, G9/13
F G B	G7, FM9/#11, Dm11/13, EbM#5/9
G A C	Am7, Fadd9, D7sus, BbM9/13, EbM#11/13
A B D	CM13, E7sus, FM#11/13, Gadd9, C9/11, Bm7
B C E	CM7, D9/11/13, FM#11, F#m7b5, Am9

이러한 방식으로 (반드시 2도간격의 음정 포함) 클 러스터를 만들어보면 [그림 1]의 “2nd+3rd” 음정을 가진 클러스터를 포함하여 모두 12가지의 조합을 만 들 수 있다.

[표 2]는 이 12가지의 클러스터의 조합이며 오선악 보는 생략한다.

[표 2] 클러스터 조합표

1	2nd+3rd
2	2nd+4th
3	2nd+4th+3rd
4	2nd+5th
5	2nd+6th
6	3rd+2nd
7	4th+2nd
8	4th+2nd+3rd
9	3rd+4th+2nd
10	5th+2nd
11	5th+2nd+4th
12	6th+2nd

이와 같이 만들어놓은 클러스터들을 메이저, 마이너, 마이너 7th b5, 도미난트 코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를 알아보도록 하겠다.

이렇게 만들어진 코드들은 때로는 3음이나 7음이 생략되기도 해서 애매모호한(Ambiguous) 사운드를 만 들어 내기도 한다. 그리고 4음 구성의 클러스터는 Top Note나 Bottom Note가 생략되기도 하며, 3음 구성의 클러스터는 Top Note가 추가되기도 한다.

먼저 메이저 7th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러스터 중 [표 2]의 7번인 4th+2nd를 응용하여 만든 보이싱 이며 Top Note를 추가해서 [그림 2]와 같이 만들어 보았다. [그림 2]는 Bottom Note를 G음으로 고정하 다음 Top Note를 추가해서 만들었고 각각의 코드는 Csus9#11, Csus9, Csus9/13, CMsus9 이다.



[그림 2] 4th+2nd 클러스터+Top Note 추가

그리고 이러한 4th+2nd 방식으로 Bottom Note에 변 화를 주어 또 다른 텐션을 지니는 보이싱을 만들 수 있다. 본 논문에서는 모두 다 언급하기에는 많은 양 이라 몇 개만 더 만들어 보겠다.

[그림 3]은 Bottom Note를 “E”음으로 유지하면서 나올 수 있는 메이저 7th 보이싱이며 각각 CM9/13, CM13, CM#11/13, CM13이다.



[그림 3] 4th+2nd 클러스터+Top Note 추가

[그림 2]와[그림 3]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메이저 계열의 보이싱이 나올수 있는 것을 알 수 있 었으며 Bottom Note를 “A”, “C”, “D”, “F#”음으로 지정해 놓고 하나씩 만들어 보면 다양한 텐션을 지 니는 코드를 만들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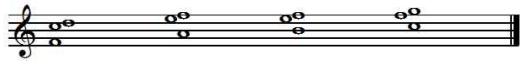
[그림 4]와[그림 5]는 마이너 7th 계열의 보이싱을 만들어 보았다.

[그림 4]는 2nd+4th+3rd를 가지고 Bottom Note를 변화시키면서 만들어 보았으며 각각 Dm9/13, Dm9/11, Dm11, Dm13이다.



[그림 4] 2nd+4th+3rd의 클러스터

[그림 5]는 6th+2nd의 방식으로 만들었으며 각각의 코드는 Dm7, Dm9, Dm11/13, Dm11이다.



[그림 5] 6th+2nd의 클러스터

다음은 마이너 7th b5의 사운드를 낼 수 있는 클러스터 보이싱이며 다른 계열의 코드와는 달리 사용할 수 있는 텐션이 적은편이라 많은 수의 클러스터 보이싱이 나오지는 않는다.

[그림 6]은 단2도의 음정을 유지한 채 Top Note를 변화시켜 만들어 보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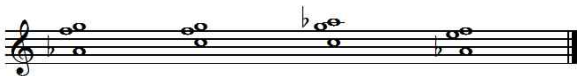
각각 Dm7b5(11), Dm7b5(11), Dm7b5(9/11), Dm7b5(11)의 보이싱을 만들 수 있었다.



[그림 6] 단2도+Top Note

[그림 7]은 Top Note 2개를 2도 음정으로 유지하면서 Bottom Note를 변화시켜서 만든 마이너 7th b5의 사운드를 낼 수 있는 보이싱이다.

처음 3개는 Dm7b5(11)의 사운드를 내며 4번째는 Dm7b5(9)의 사운드를 내준다.



[그림 7] 단2도 간격의 Top Note+Bottom Note

마지막으로 도미난트 7th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러스터이다. 도미난트 코드의 특성상 9th, b9th, #9th, 11th, #11th, 13th, b13th의 텐션을 사용 가능하기에 이전의 메이저나 마이너 사운드의 경우보다 많은 수의 클러스터를 만들어 낼 수 있다.

모두 언급하기에는 지면상의 제약 때문에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다.

[그림 8]과 [그림 9]는 2도 음정의 화음위에 Top Note를 더한 경우이다.



[그림 8] 2nd+Top Note



[그림 9] 2nd+Top Not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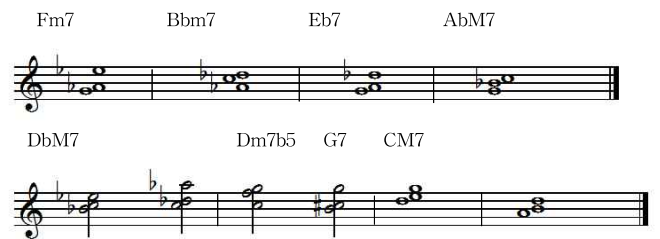
[그림 8]은 각각 G13, G7(13), G7#11/13, G7b13이고 [그림 9]는 각각 G7#9/b13, G7b9/b13, G7sus, G9#11이다.

[그림 10]은 두 개의 Top Note를 2도 음정으로 만들고 Bottom Note를 이동시키면서 만든 화음들이며 각각 G7#9, G13, G7susb9, G7b9이다.



[그림 10] 2도간격의 Top Note+Bottom Note

지금까지의 클러스터 보이싱을 적용하여 스탠다드 곡인 “All The Thing You Are”의 첫 8마디 부분을 만들어 보면 [그림 11]과 같다.



[그림11] All The Things You Are

3. 결 론

20세기 이후 현대음악에서 처음 사용되어진 클러스터 보이싱을 간략하게나마 정리해 보았다.

본 논문은 클러스터 보이싱의 특징인 2도간격의 음정을 이용하고 코드의 성질을 나타내는 3도나 7도를 때때로 생략하는 보이싱에 대한 연구이다.

이러한 클러스터 보이싱을 이용하여 긴장감을 주는 특유의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음악에 색채를 더하게 될 수 있다.

기존의 3화음 위주의 보이싱과는 매우 다른 느낌을 주고 있으며 4도씩 쌓아가는 4th Chord(Quartal Harmony)와는 종종 비슷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. 이러한 클러스터 보이싱을 이용하여 작, 편곡을 할 때 색다른 사운드를 내는 재료로써 사용될 수 있으며 즉흥 연주시에는 Comping의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다.

참고문헌

- [1] Jon Damian, The Guitarist's Guide to Composing and Improvising, Berklee Press
- [2] 北條 直彦, 新主流派以降の現代ジャズ技法2, 中央アート出版社
- [3] Hal Crook, How To Comp, Advance Music
- [4] David Liebman, A Chromatic Approach To Jazz Harmony And Melody, Advance Music
- [5] David Berkman, The Jazz Musician's Guide To Creative Practicing, Sher Music Co.
- [6] 稲森 康利, The Jazz Chords For All Instrumentalists, 中央アート出版社
- [7] Mick Goodrick, Advancing Guitarist, Hal Leonard Corporation
- [8] Bret Willmott, Complete Book Of Harmony Theory & Voicing, Mel Bay Publications
- [9] Scott Henderson, Jazz Guitar Chord System, Hal Leonard Corporation